

2023
고2 언어
창비

고2 언어와 매체 창비 | 1(1)(2) 국어의 특성과 위상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이 단원의 두 파트 중 '국어(한국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첫째, 지문이나 <보기> 없이 묻는 유형, 둘째, 교과서 지문 속 예시나 학습 활동의 예시를 <보기>에 제시하고 묻는 유형, 셋째, 지문을 제시하고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 지문의 내용을 점검하면 되므로 쉬운 편에 해당하지만, 지문이나 <보기> 없이 국어(한국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도 많았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의 특성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음 중 국어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어의 발달로 색채를 표현할 때 색감의 차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접두사를 활용하여 색감의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으며 '팔딱팔딱, 펄떡펄떡'처럼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 ③ 국어의 문장에서는 영어와 달리 문장의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 이외의 문장 성분은 생략되는 일이 없다.
- ④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영어 'give'에 해당하는 국어 어휘에는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등 다양한 높임말이 존재한다.
- 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영어에는 'aunt'로 통칭하는 대상이, 우리말에서는 '이모, 고모, 숙모' 등으로 세분된다.

2. 국어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파열음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대립한다.
- ② 친족 관계나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다.
- ③ 감각어가 발달하여 같은 계열의 색채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 ④ 음성 상징어에서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다.
- ⑤ 주로 서술어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어순으로 문장이 구성되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3. 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국어의 자음은 파열음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대립한다.
- ② 국어 어휘는 감각어가 발달하여 색채어를 나타낼 때 다양하게 나타내고, 접미사를 활용하여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 ③ 국어에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고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 ④ 국어에는 친족 관계 및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으며, 이것은 친족 중심의 생활과 사람들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며 문장의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는 쉽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4. 다음 중 언어와 국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같은 사회 집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② 우리 국어의 파열음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 ③ 우리 국어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다는 어휘적 특성이 있다.
- ④ 언어는 발화자에게 가까운 것은 먼저 인식하는 사고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우리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는데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차이를 표현한다.

5. 다음 중 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대립을 이룬다.
- ②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영어나 중국어의 어순과 차이를 보인다.
- ③ 국어는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알록달록, 얼룩덜룩', '펼떡펼떡, 팔딱팔딱' 등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 ④ 국어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 생략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⑤ 국어는 같은 계열의 색채를 표현할 때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등 다양한 감각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6.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특성을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
| 국어 | 영어 |
| ㉠ - 언제 왔어? - 방금 | - When did you come? - I just got here. |
| ㉡ 밥, 진지 | meal |
| ㉢ 이모, 숙모, 고모 | aunt |
| ㉣ 노랗다, 누렇다 | yellow |
| ㉤ 나는 너를 사랑한다. | I love you. |

- ① ㉠: 국어는 입말에서 주어를 영어와 달리 쉽게 생략한다.
- ② ㉡: 국어는 영어와 달리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 체계를 갖추고 있다.
- ③ ㉢: 국어와 영어 모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같은 수준으로 발달했다.
- ④ ㉣: 국어는 양성 모음에 음성 모음이 어울리는 방법으로 영어보다 색채어가 발달했다.
- ⑤ ㉤: 국어는 영어보다 문장의 서술어와 같은 핵심 정보를 먼저 전달하는 어순으로 이루어졌다.

7. <보기>의 ㄱ~ㅁ을 참고하여 국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
| ㄱ. [국어] ㄱ-ㄱ-ㄱ | [영어] g-k |
| ㄴ. [국어] 노랗다, 누렇다 | [영어] yellow |
| ㄷ. [국어] 이모, 숙모, 고모 | [영어] aunt |
| ㄹ. [국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 [영어] I love you.(나는 사랑한다 너를) |
| ㅁ. [국어] 언제 왔어? / 방금. | [영어] When did you come?(너는 언제 왔어? / I just got here.(나는 방금 왔어.) |

- ① ㄱ을 통해 국어의 파열음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대립함을 알 수 있다.
- ② ㄴ을 통해 국어의 어휘는 접두사를 활용한 감각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ㄷ을 통해 국어의 어휘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세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ㄹ을 통해 국어의 문장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⑤ ㅁ을 통해 국어는 대화 상황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8. <보기>를 통해 탐구한 한국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 | 국어 | | | 영어, 프랑스어 | |
|-------------|----------|---------|----------|----------|-----------|
| | 예사 소리 | 된소 리 | 거센 소리 | 울림소 리 | 안울림 소리 |
| 파 열 음 | ㄱ | ㄲ | ㅋ | g | k |
| | ㄷ | ㄸ | ㅌ | d | t |
| | ㅂ | ㅃ | ㅍ | b | p |

(나)

| | |
|----|--|
| 국어 |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
| 영어 | Yellow |

(다)

알록달록-얼룩덜룩, 팔딱팔딱-펼떡펼떡, 달그락-덜그럭

(라)

| | |
|-----|---------------------------|
| 국어 | 나는(주어) 너를(목적어) 사랑한다.(서술어) |
| 영어 | I(주어) love(서술어) you.(목적어) |
| 중국어 | 我(주어)爱(서술어)你.(목적어) |

(마)

| | |
|----|--|
| 국어 | - 언제 왔어? - 방금. |
| 영어 | - When did you come? - I just got here. |

- ① (가): 한국어의 파열음은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대립한다.
- ② (나): 한국어에서는 접두사를 활용하여 비교적 색채 표현의 범위가 풍부한 편이다.
- ③ (다): 한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다.

- ④ (라): 한국어의 문장에서는 마지막에 서술어를 두는 것으로 보아, 서술어를 강조하지 않는다.
- ⑤ (마): 한국어는 대화 도중 필수 성분인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9. <보기>는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을 인터뷰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정리한 글이다. <보기>를 읽고 알 수 있는 국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영어는 자음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뉘는데 한국어는 안 그래요. 처음에 ‘떡볶이’ 발음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두툼떡’은 아직도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 “영어에서 ‘노란색’을 말할 때는 ‘yellow’ 하나면 되는데, 한국어에는 ‘yellow’를 뜻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 셋노랗다’ 등 너무 헷갈려요.”
- “직장 상사에게 ‘식사하러 갑시다.’라고 했는데 상사분이 저를 혼내시며 ‘그건 아랫사람에게 하는 높임 표현이지.’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했어요. 아랫사람에게 하는 높임 표현이 있다니...”
-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음식 묘사를 실컷 하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이야기 끝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아직 어색하게 느껴져요.”
- “한국에는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같이 각각 가족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uncle’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외우기 힘들어요.”

- ① 국어는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
- ② 국어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다.
- ③ 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윗사람에게 하는 높임 표현만 발달되어 있다.

- ④ 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문장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 ⑤ 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국어의 파열음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운에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다른 언어의 자음과는 달리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유기음)로 대립한다. 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언어의 자음이 울림소리(유성음)와 안울림소리(무성음)로 대립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국어의 어휘에는 감각어가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계열의 색채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색감의 차이에 따라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셋노랗다, 셋누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처럼 접두사를 활용하여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음성 상징어 역시 발달하였는데 '알록달록, 얼룩덜룩', '팔딱팔딱, 펄떡펄떡', '달그락, 덜그럭' 등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영어에서 'aunt'로 통칭하는 대상이 우리말에서는 '이모, 숙모, 고모' 등으로 세분된다.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한 것도 국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주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give'에 해당하는 국어 어휘에는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등 다양한 높임말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영어, 중국어와 다른 점이다.

국어의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일이 많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그 문장의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는 쉽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

10.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낱말이 지닌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다.
- ② 국어에는 감각어가 발달하였지만 음성 상징어는 발달하지 않았다.
- ③ 국어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는 발달했지만 높임 표현은 발달하지 못했다.
- ④ 국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 ⑤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1.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어와 영어는 음운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②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명확하게 발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③ '두텁떡'의 각 초상과 같이 영어의 파열음도 '평음, 유기음, 경음'으로 대립하여 나타난다.
- ④ 국어는 '셋노랗다, 셋누렇다'처럼 접두사를 활용하여 색감을 차이를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⑤ '빨강다'의 경우에는 접두사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팔랑팔랑/펄렁펄렁, 올망졸망, 울렁울렁
- ㉡ 삼촌/외삼촌/큰아버지/작은아버지
- ㉢ 지현(한국인): 안나, 너는 도대체 뭘 먹은 거니?
안나(외국인): 지현, 나는 먹었어 떡.

- ① 국어의 어휘에는 ㉠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과 같이 '뚝뚝뚝'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음성 상징어에 해당한다.

- ③ ㉠은 국어의 어휘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④ 국어의 문장은 ㉡의 '지현'처럼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 ⑤ ㉢의 '안나'는 국어의 어순에 따라 '나는 떡을 먹었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국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파열음은 영어와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대립한다.
- ② '알록달록, 얼룩덜룩' 등은 모음 조화를 활용한 감각어가 돋보이는 예이다.
- ③ 국어는 영어, 중국어와 다르게 문장 필수 성분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영어에서 'aunt'로 통칭하는 대상이 우리말에서는 '이모, 숙모, 고모' 등으로 세분된 것은, 국어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 ⑤ 기본적으로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나타나는 영어, 중국어와 다른 것이다.

필수 유형 1

이 단원의 두 번째 파트인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없이 한국어를 발전·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묻기도 하고 지문 내용을 읽은 후의 반응을 묻기도 했습니다.

14.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면?

- ① 우리말을 사랑하기
- ② 우리말을 규범에 맞게 사용하기

- ③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 개발하기
- ④ 한국어 중 외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 찾기
- ⑤ 한국어 중 외국인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 위주로 교육하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제품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고,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졌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부 국립 국제 교육원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인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가 2007년 740명에서 2016년 4만 9천여 명으로 9년 만에 약 66배 증가하였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응시자 수는 1997년 2,692명에서 2016년 25만 141명으로 약 9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한국어가 세계의 주요 언어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인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음운 현상이나 어휘 체계, 문장 구조 등이 외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어려워하는 부분과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면 그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규범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에 한국어는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 윗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 현상이나 체계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 ② 한국어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전했구나.
- ③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는 태도는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 ④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를 사용하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구나.
- ⑤ 세종 학당의 수강생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필수 유형 2

지문 중에 활용된 '접두사'에 관한 문법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 국어 파열음의 삼중 대립과 관련된 음운을 묻는 문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예를 <보기>에 제시하고 한국어의 위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6. <보기>의 ㉠을 활용하여 형성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의 어휘에는 감각어가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계열의 색채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색감의 차이에 따라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셋노랗다, 셋누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처럼 ㉠ 접두사를 활용하여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음성 상징어 역시 발달하였는데 '알록달록, 얼룩덜룩', '팔딱팔딱, 펄떡펄떡', '달그락, 덜그럭' 등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밀치다 ② 들볶다 ③ 개떡
- ④ 빗나가다 ⑤ 짓밟다

1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음운에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국어의 자음 중 발음 과정에서 파열의 과정이 수반되는 자음들은 다른 언어의 자음들과는 달리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유기음)의 세 갈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언어의 자음이 울림소리(유성음)와 안울림소리(무성음)로 대립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다.

| |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
|---|------|-----|------|
| ① | ㄱ | ㄲ | ㅋ |
| ② | ㄷ | ㄸ | ㅌ |
| ③ | ㅂ | ㅃ | ㅍ |
| ④ | ㅈ | ㅉ | ㅊ |
| ⑤ | ㅅ | ㅆ | ㅎ |

18. <보기>의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거주하는 페트라는 최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 자녀의 한글 학습을 돕고자 한글 학교에 수업 문의를 했다.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한국 가수를 모르는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레이든 대학교 한국학과로 진학을 희망할 정도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류 팬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한류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는 매년 한국학과로의 입학 을 원하는 네덜란드 학생들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학과에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오기도 했다. 네덜란드 내에는 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에인트호번 등 세 곳에 한글 학교가 있다. 보통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주재원 자녀가 다녔지만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네덜란드인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 2020년 9월 29일 기사

(나) 언어별 제1언어 사용 인구 현황(2020년)

| 순위 | 언어 | 사용자 수 (백만 명) |
|-----|------|-----------------|
| 1 | 중국어 | 918 |
| 2 | 스페인어 | 480 |
| 3 | 영어 | 379 |
| 4 | 힌디어 | 341 |
| ... | ... | ... |
| 13 | 한국어 | 77.3 |
| 14 | 프랑스어 | 77.2 |

- 에스놀로그 23판

(다) 2019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는 375,871명, 합격자 수는 208,473명이었다. 2015년에 206,778명에 지원하여 129,227명이 합격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만에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한 숫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우리 문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했다는 판단으로 '한국어 확산 계획(2020-2022)'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한국어 보급 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세종 학당'을 2019년 180개소에서 2020년 270개소까지 확대하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의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계획이다.

- ① 외국보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다.
- ② 정부는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③ 외국 대학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
- ④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 ⑤ 한국의 대중문화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

국인이 많아졌다.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③

국어의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일이 많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그 문장의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는 쉽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 따라서 국어에 필수 성분 이외의 문장 성분은 생략되는 일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국어는 감각어가 발달하여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등과 같이 색감의 차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셋노랗다, 싯누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처럼 접두사를 활용하여 색감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다. 음성 상징어에서 '알록달록', '팔딱팔딱'과 같이 양성 모음끼리 활용하여 작고 밝은 느낌을 주거나 '얼룩덜룩', '펄떡펄떡'과 같이 음성 모음끼리 사용하여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④ 국어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으며, 영어 'give'에 대응하는 국어 어휘에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등 다양한 높임말이 존재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⑤ 국어는 친족 관계어가 발달하였으며, 영어에는 'aunt'에 대응하는 국어 어휘에 '이모, 고모, 숙모' 등이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정답 ①

국어는 파열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삼중 대립을 보일 뿐,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대립하지 않는다.

② 국어는 친족 관계어와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다.

③ 국어는 감각어가 발달하여 색채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④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으며,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알록달록, 얼룩덜룩', '팔딱팔딱, 펄떡펄떡', '달그락, 덜그럭' 등과 같이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다.

⑤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성을 띠며, 영어와 달리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

3. 정답 ②

국어는 감각어가 발달하여 색채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셋노랗다, 싯누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접미사'가 아닌 '접두사'를 색채어에 활용하여 표현을 풍부하게 만든다.

① 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대립을 보인다.

③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다. 음성 상징어에서 '알록달록', '팔딱팔딱'과 같이 양성 모음끼리 활용하여 작고 밝은 느낌을 주거나 '얼룩덜룩', '펄떡펄떡'과 같이 음성 모음끼리 사용하여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④ 국어에는 친족 관계어가 발달되었는데, 이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경사회의 영향으로 친족 중심으로 무리 지어 생활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위계질서(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⑤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를 띠는데, 실제 대화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4. 정답 ②

국어는 파열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삼중 대립을 보일 뿐,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대립하지 않는다.

①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대 차이에 따른 언어의 특징이다.

③ 영어의 'aunt'에 대응하는 국어가 '이모, 숙모, 고모' 등으로 다양한 것과 같이 국어는 친족 관계어가 발달하였다.

④ '여기저기', '이쪽저쪽'과 같이 언어는 발화자와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⑤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하였다. 음성 상징어

에서 '알록달록', '팔딱팔딱'과 같이 양성 모음끼리 활용하여 작고 밝은 느낌을 주거나 '얼룩덜룩', '펼떡펼떡'과 같이 음성 모음끼리 사용하여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5. [정답] ④

국어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그 문장의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는 쉽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 따라서 필수 성분을 실제 대화에서 생략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다른 언어의 자음과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대립을 이룬다.

② 영어나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인데 반해, 국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을 보인다.

③ 국어는 음성 상징어에서 '알록달록', '팔딱팔딱'과 같이 양성 모음끼리 활용하여 작고 밝은 느낌을 주거나 '얼룩덜룩', '펼떡펼떡'과 같이 음성 모음끼리 사용하여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⑤ 색채 표현은 감각어에 해당한다. 국어는 '파랳다,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랳다, 푸르스름하다'와 같이 같은 계열의 색채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6. [정답] ①

①의 국어에서 '언제 왔어?'는 '너(는)'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방금'은 '나는', '왔어'와 같은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어는 영어와 달리, 입말에서 주어를 쉽게 생략하는 특성이 있다.

② ㉠의 국어에서 보이는 '밥'과 '진지'는 국어가 높임말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 체계를 띠지 않으며 '진지'가 한자어도 아니다.

③ ㉡에서 국어의 '이모, 숙모, 고모'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aunt'로 통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어가 영어보다 친족 관계어가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어와 영어의 친족 관계어가 같은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의 예를 통해 국어가 영어보다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 '노랳다, 누렇다'는 색감의 차이를 다양하게 표현한 어휘일 뿐 양성 모음에 음성 모음이 어울린 어휘가 아니며, 양성 모음에 음성 모음이 어울리는 방법이 국어의 특성도 아니다.

⑤ ㉣을 통해 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영어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가 영어보다 서술어를 먼저 전달하는 구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③

국어의 '이모, 숙모, 고모'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aunt'로 통칭한다는 것을 통해, 국어의 어휘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을 통해 국어의 파열음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대립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국어가 접두사를 활용하여 감각어 중 색채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가 아니다. ㉡을 통해 국어가 색감의 차이에 따라 색채어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을 통해 국어가 '주어-서술어-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언제 왔어?'는 '너(는)'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방금'은 '나는', '왔어'와 같은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어는 대화 상황에서 필수 성분인 주어를 쉽게 생략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정답] ③

(다)는 모음조화, 즉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사용하여 음성 상징어를 표현하는 예이다. 양성 모음끼리 활용하면 작고 밝은 느낌을 주고 음성 모음끼리 활용하면 크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따라서 (다)를 통해 한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자음은 성대의 울림에 따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 (가)에서 한국어의 파열음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삼중 대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국어가 접두사를 활용하여 감각어 중 색채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나)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가 아니다. (나)를 통해 국어가 색감의 차이에 따라 색채어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서술어를 두는 어순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서술어를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⑤ '언제 왔어?'는 '너(는)'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방금'은 '나는', '왔어'와 같은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한국어가 주로 대화 상황에서 주어를 생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알 수 없다.

9. 정답 ③

세 번째 인터뷰 내용에서 외국인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높임표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어가윗사람에게 하는 높임 표현만 발달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두 번째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어는 색채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어는 친족 관계어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네 번째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고, 따라서 말이 끝날 때까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국어가 영어와 달리 파열음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①

2문단의 '음성 상징어 역시 발달하였는데 '알록달록, 얼룩덜룩', '팔딱팔딱, 펄떡펄떡', '달그락, 덜그

럭' 등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국어의 어휘는) 음성 상징어 역시 발달하였는데'를 통해 국어가 음성 상징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한 것도 국어의 특성이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기본적으로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④

2문단의 '(국어는) 색감의 차이에 따라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설명한 국어 파열음의 대립 구조와 다른 언어 자음의 대립 구조의 차이, 2문단에서 설명한 영어와 국어의 어휘 차이를 통해 국어와 영어가 음운이나 어휘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③ 1문단에서 국어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대립 구조는 국어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음을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구별하는 영어 사용자는 '떡볶이'의 'ㅌ'이나 '두텁떡'의 'ㄷ, ㅌ, ㅌ'을 발음하기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빨갱다' 역시 '새-'라는 접두사를 활용하여 매우 빨갱다는 의미의 '새빨갱다'를 사용할 수 있다.

12. 정답 ②

①의 예는 모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사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음성 상징어이다. 그러나 '뚝뚝뚝'은 음성 모음 'ㅓ'와 양성 모음 'ㅏ'가 함께 쓰인 단어이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① 2문단에서 국어는 음성 상징어가 발달했다고 하였으며 ①은 그 예에 해당한다.

③ 2문단에서 국어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다고 하였으며 ㉠은 그 예에 해당한다.

④ 3문단에서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의 '너는(주어) 도대체 뭘(목적어) 먹은 거니(서술어)?'라는 지현의 말은 이 예에 해당한다.

⑤ 3문단에서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나는(주어) 먹었어(서술어) 떡(목적어).'이라는 안나의 말은 '나는(주어) 떡을(목적어) 먹었어(서술어).'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주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의 문장 성분 생략에 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1문단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알록달록, 얼룩덜룩' ... 등 모음 조화를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국어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영어에서 'aunt'로 통칭하는 대상이 우리말에서는 '이모, 숙모, 고모' 등으로 세분된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⑤

한국어 중 외국인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지만, 외국인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외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 우리말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모두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다.

15. **정답** ②

1문단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에 대해 언급한 후,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진 것은 한

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① 2문단의 '한국인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음운 현상이나 어휘 체계, 문장 구조 등이 외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는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는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한국어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 개발을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1문단에서 세종 학당의 수강생 수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이는 세계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정답** ①

밀치다는 '밀- + -치- + 다'의 구성으로, '밀다'를 강조하기 위해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치-'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접두사)을 활용한 단어가 아니다.

- ② '뉘다'에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들-'이 결합한 단어이다.
- ③ '떨'에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 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개-'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④ '나가다'에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빚-'이 결합한 단어이다.
- ⑤ '밟다'에 '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짓-'이 결합한 단어이다.

17. **정답** ⑤

'ㅅ'은 파열음이 아니라 마찰음이며 대응하는 거센 소리가 없는 자음이다.

- ①, ②, ③ 파열음 'ㄱ, ㄷ, ㅂ'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대립 구조로 적절하다.
- ④ 'ㅈ'은 파찰음으로, 파찰음은 파열의 과정이 수반되는 소리이므로 <보기>의 밑줄 친 예로 적절하며, 삼중 대립 구조 역시 적절하다.

18. **정답** 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와 국내에

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외국보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

② (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하는 '한국어 확산 계획'은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③ (가)에서 언급한 레이든 대학교의 한국학과에 관한 설명을 통해, 외국 대학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한국 문화의 전파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형 기출 문제

1. **정답** 국어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다. / 국어는 실제 대화에서 필수 성분을 쉽게 생략한다.

2. **정답** 미국인 관광객이 [방]과 [빵]을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겼다. / 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대립하지만 영어의 자음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대립하기 때문에, 미국인 관광객이 'ㅂ'과 'ㅃ'을 구별하여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정답**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세종 학당의 수강생 수가 9년 만에 66배 증가하였다. /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19년 동안 93배 증가하였다.

4. **정답**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어휘 체계, 문장 구조가 외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외국인이 어려워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 규범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우리말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서지정보

저자 김정혜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5062-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0504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5062-3 (EPUB2)